

‘세계 책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열려 · 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공동대표 도정일)과 세계책의날조직위원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여수 외)는 지난 4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책의 날’ 선언식과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기금 창립대회를 열었다. 소설가 김주영, 문학평론가 김병익, 인제대 이광주 명예교수, 영화배우

안성기씨 등 1백여명의 문화계 인사와 주관단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선언문(아래 상자 기사)을 낭독하고, 마쓰우라 준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메시지(이어지는 기사 참조)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4월 21일(일)에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교보문고, 영풍문고, 부산 영광도서, 광주 충장서

림 등 13개 전국 주요서점이 ‘책과 장미’를 독자들에게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에서 기증한 5만여권의 책들이 이날 참여서점을 찾는 가족, 부부, 연인 등에게 장미와 함께 선물로 전달됐다.

한편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대표 한완상)는 4월 23일부터 시작해 한달간 ‘책 선물하고 기증하여 더불어 읽기’ 캠페인을 벌인다. 서로 책을 선물하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성인들은 지역 공공도서관에 자신이 선물받아 읽은 책을 기증함으로써 책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자는 것이다. ‘책과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작가나 유명 독서가를 초청해 전국 순회 강연회도 펼칠 예정이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세계 책의 날’ 기념 포스터와 엽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포스터는 전국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했고 기념엽서는 전국 서점에 배포해 독자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온·오프라인 서점(교보문고, 에스24 등)과 함께 ‘사랑의 책보내기’ 축제를 벌였다. 군복무중인 친구나 연인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을 대신 선물해주는 행사로,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들 서점 사이트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아 1천명을 추첨, 1인당 2권의 양서를 ‘세계 책의 날’ 병영에 도착하도록 우송했다.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신기남)는 4월 23일 국립도서관 대강의실에서 장애인, 노인, 환자, 문맹자 등 독서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충을 부각시키고,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도서관 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 교사들(대표 허병두)이 ‘청소년을 위한 책선물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할 만한 책,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할 만한 책, 선생님이 제자에게 선물할 만한 책, 제자가 선생님께 선물할 만한 책, 친구끼리 서로 선물할 만한 책 등으로 나눠 모두 150여권의 책을 선정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유네스코 메시지

“책은 인간의 가치, 지혜,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책은 창조, 정보, 교육의 매개체로서 모든 문화의 중요한 양식을

‘세계 책의 날’을 기리며— 책 읽는 사회를 위하여

“책은 인간의 기억이고 상상력이며 사유이고 표현입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이른 아침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문자와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점토판에 썬기문자를 새겨 넣어 기록문서를 만든 것이 책의 시초이며 그 점토판 책을 보관했던 서고가 도서관의 시초입니다. 그 점토판 책에 수록된 수메리아 신화의 한 대목에는 “하늘의 신이 땅 속으로 들어가 어둠의 신과 이레를 다투자 아무 것도 없었던 황막한 땅 위로 푸른 나무 한 그루가 솟아올랐다”고 써어 있습니다. 5천년 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후대로 전해지고 거기 담긴 사유와 상상력이 또 다른 사유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이라는 이름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존재의 핵심부에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등의 시대에는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화의 길을 트고 타자를 이해하며 문화적 차이들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 대화, 이해, 관용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정신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데는 책이 최선의 평화적 수단이자 자원이라고 생



각합니다. 총과 폭탄을 통해서가 아니라 책이 열어주는 이해와 관용의 창구를 통해서만 인류는 공존의 정의가 살아 있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책이 최선의 지식을 실어 나르고 최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최선의 창조적 표현매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매체는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도서관을 살리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자고 말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지식과 정보와 표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책 읽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 창조적 사회, 기분이 선 사회를 실현하는 기초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7회 ‘세계 책의 날’이 우리의 이 긴절한 사회적 요청과 과제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4월 23일
세계책의날 조직위원회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유네스코 사무총장 고이치로 마츠우라
(Koichiro Matsuura)

지난 달 21일에 한 대형서점에서 열린 '책과 장미' 이벤트에 참가한 영화인 안성기씨가 독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

기록하여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더욱이, 시공을 넘어선 문명간 가교이며, 문화다양성의 창(窓)인 책은 대화의 근원이며, 교류의 수단인 동시에, 발전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네스코는 1996년 이래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기념해오고 있으며, 백여 개 국가에서 수 백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저술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저작권의 증진에 기여하면서, 이 기념일은 책의 창조적, 산업적, 정책적, 국내적, 국제적 측면 등 다양한 면모를 끌어내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이 정한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해 '유산과 대화' '유산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설정하였는데, 책과 저작권은 이 주제를 달성하는 가장 적합한 요소입니다. 즉, 기록의 수단이자 창의성의 핵심인 책은 단어의 저장소인 동시에 생각을 교류시키는 도구이며, 유일한 매체인 동시에 재생이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은 정서적 소산물인 동시에 문화산업물의 하나일 뿐 아니라, 현실과 이상을 반영합니다. 고유한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둔 책은 전통과 상응하면서, 또 타문화와 만나고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류의 유산인 것입니다.

2002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문화유산에 대한 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무·유형의 인류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인쇄 또는 디지털화된 모든 형태의 책과의 비옥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책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 유공자 포상도 결들인 이번 행사는 'WIPO 신조약상 공중전달권의 내용 및 그 제한과 예외'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하고 우리 저작권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했다.

| 3704-9440

금성출판문화재단,

〈제10회 MBC 창작동화대상〉 수상작 선정

금성출판문화재단(이사장 김낙준)은 문화방송과 공동 주최한 〈제10회 MBC 창작동화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수상자와 작품은 ▲장편부문 대상—김기은의 《세계일주를 떠나는 마녀할머니》 ▲단편부문 대상—양혜정의 〈애벌레는 알고 있을까?〉이고, 장편부문 각각 1편과 단편부문 각각 2편도 함께 선정했다. 장편 수상자에게는 2천5백만원, 단편 대상 수상자에게는 7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시상식은 5월 3일 MBC방송센터에서 열렸다.

| 713-4155

아이세움,

《이문열·이희재 만화 삼국지》 출판기념회 열어

아이세움(대표 황태량)은 《이문열·이희재 만화 삼국지》를 전10권으로 완간하고 지난 5월 2일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 2001-7651

창작과비평사,

〈창비아동문고의 어제 오늘 그리고〉전 열어

창작과비평사(대표 고세헌)는 오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창비아동문고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창비아동문고의 어제 오늘 그리고〉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초간본→개정판→개정2판 등으로 변화해 온 창비아동문고의 변천사, 작가들의 친필원고와 이만익, 손장섭, 이철수 등의 초창기 삽화부터 신혜원, 정승각까지 현재 활동중인 삽화가의 그림도 돌아볼 수 있다.

한편 창비는 창비아동문고 200, 201권 출간을 기념해 오는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이화여대 교육문화관에서 노래와 연극이 함께 하는 공연 〈나랑 같이 놀자〉를 연다. | 718-0543 | www.changbi.com

한길사, 〈레츠고〉 시리즈 출간 기자간담회 열어

한길사(대표 김연호)는 본격적인 여행가이드북 〈레츠고〉 시리즈(전30권)와 테마여행의 진수를 고품격 독서로 보여줄 〈한길 헤르메스〉 시리즈 출간을 기념해 지난 4월 29일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편 한길사는 '기행문학상' 제정 등 여행관련 기획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515-4836

현대문학, 제47회 〈현대문학상〉 시상식 열어

현대문학(대표 양숙진)은 지난 4월 26일 갤러리 라메르에서 제47회 〈현대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부문별 수상자는 ▲시부문—최승호 ▲소설부문—이혜경 ▲평론부문—류보선 등이다. 한편 갤러리 라메르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후원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 라메르 3층에서 현대문학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전인 〈현대문학을 돕는 미술인 66인전〉도 열렸다.

| 730-5454 | www.hdmh.co.kr

현암사, 《이 한 장의 명반 오페라》 출간기념회 열어

현암사(대표 조근태)는 지난 4월 29일 저녁 7시 현암사 사옥에서 안동림의 《이 한 장의 명반 오페라》 출간기념회 열었다. | 365-5051

어린이도서관, 〈이태수의 자연 그림 원화전〉 열어

세밀화가 이태수씨가 어린이도서관 별관 개관을 기념해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어린이도서관 전시실에서 〈이태수의 자연 그림 원화전〉을 개최한다. 어린이도서관이 주최하고 다섯서레가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는 개구리와 개미의 생태를 작가 특유의 살아 있는 듯한 세밀화로 보여준 이태수씨의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개미가 날아 올랐어〉의 원화들

예술제본가 백순덕씨 개인전 열려

예술제본가 백순덕의 개인전 <앞장과 뒷장 Recto-Verso전>이 5월 5일부터 12일까지 아티그램에서 열린다. 홍성사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백씨가 프랑스 체류시 만든 120여권의 책과 이곳에서 주문제작된 성경, 성서필사본, 문학류 등의 책, 또 학생들 예술제본 교육을 위해 만든 책 등 200여 편의 작품을 전시한다. | 326-1145

영진닷컴, 5월 코스닥 등록 예정

영진닷컴(대표 이문철)은 지난 1월 30일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 4월 16~17일 공모주를 청약받고 5월 7일 매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모 물량은 340만 주, 액면가는 500원이며 공모가는 4,800원이다. 영진닷컴은 국내의 대표적인 IT전문출판사로 컴퓨터 서적업계 시장점유율 40%를 선회하며,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했다.

한편 영진닷컴은 도서출판 하우피씨와 인큐베이팅 계약을 체결해 향후 2년간 채무, 제작, 영업, 물류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하고, 하우피씨는 올해 30여종의 IT전문 실용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 2105-2103 | www.youngjin.com

<문화과학> 창간 10주년 심포지엄 열어

'과학적 문화이론'과 '진보적 문화정치'의 가치를 내걸고 1992년 발간하기 시작한 <문화과학>(발행

인 강내회)이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4일 광화문 흥국생명 컨퍼런스홀에서 '이데올로기와 욕망—즐거운 혁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1부 '성애, 성차—이데올로기와 욕망의 현

장', 2부 '변혁과 탈주의 변주곡', 3부 '다중(多衆), 국가, 계급', 4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서울대 김세균 교수, 문화평론가 서동진, 상지대 홍성태 교수 등이 발제·토론자로 참가했다. | 335-0461

2002 한국전자책 산업전, 성황리에 마쳐

'지식을 담은 새로운 그릇 e-Book'을 주제로 한 '2002 한국전자책산업전'이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서울 파이낸스센터 7층에서 열렸다. 한국전자출판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출판연구소·매일경제신문사·문화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책컨소시엄이 주관한 이 전시회에는 전자책 단말기 업체, 전자책 서비스 업체, 전자책 솔루션 업체 등이 참가했다.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김경희 한국전자책컨소시엄 회장,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연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정진숙 을유문화사 대표 등이 참석해 개막 테이프를 끊고 전시장을 관람했다. 남궁진 장관은 격려사에서 "이번 산업전을 계기로 한국 출판계가 전자책을 활성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자



책 콘텐츠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에서도 한국전자출판산업이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핵심기반 콘텐츠로서 새로운 출판시장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뿐 아니라 세계 전자 출판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자책과 종이책의 상생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서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전자책에 희망은 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25일에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성대훈 EBK 상임연구원이 <학생을 위한 e-Book 실무강좌> <e-Book으로 여는 지식사회>를, 이해성 와이즈브룩토피아 기술이사가 <편집자를 위한 e-Book 실무강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 날에는 사업설명회와 투자설명회가 열렸다.



출력

사료전지 출력기 2대 가동!

가격, 시간, 품질, 문제 없습니다

PDF 파일출력/다국어 출력(산돌다국어, 로알다국어)
분판필름출력(사료전지)/대형드럼스캔/칼라복사
대형칼라실사출력/칼라레이저출력

원색교정 흑백LP 흑백필름 CD백업 바코드파일 OHP필름 편집디자인 등

매킨토시·IBM 전문 종합출력

아래아한글, 워디안, 코렐드로우, 페이지메이커, MS워드, 파워포인트, 훈민정음 등

매킨토시·IBM 자동하리꼬미 무료
아래아한글 등 IBM 분판필름 출력
다양한 최신서체 출력

태광 수식서체, 다국어서체(로알다국어, 산돌다국어)
2002산돌퓨전서체, 다양한 최신서체 보유
(윤, 국민서체, 폰트뱅크, 산돌, 소프트매직, 한양, 한컴 외)

24시간 출력 (일요일, 공휴일은 사전예약제)
※「경문서체건본」 증정



Since 1989
경은출력

파일전송 <http://printok.webhard.co.kr>
대표전화 3236-365 팩스 3330-208